

구 데미야 철도 시설

오타루의 데미야 철도 시설은 19세기 말에 홋카이도 최초의 기관차를 격납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오타루시 종합박물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축척 모형, 사진, 철도 차량과 증기 기관차를 통해 홋카이도 초기 철도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관고 등 당시 설비 중 일부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의 일부 건축물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로나이(현재의 미카사시)의 탄광에서 삿포로를 거쳐 오타루까지 이어지는 호로나이 철도 건설의 지휘를 맡은 사람은 미국인 철도 기술자 조지프 유리 크로포드(*Joseph Ury Crawford*, 1842년~1924년)였습니다. 크로포드는 펜실베이니아주 H.K. 포터사(*H.K. Porter & Co.*)의 미국제 증기 기관차와 델라웨어주 할란&홀링스워스사(*Harlan & Hollingsworth*)의 승객 차량을 채용했습니다. 호로나이 철도는 우선 데미야~삿포로 구간이 1880년에 개통되었으며, 1882년에는 전체 노선이 완공되었습니다. 당시의 엔진과 차량 중 일부는 후에 구매한 차량과 함께 구 데미야 철도시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차고 3호

기관차고 3호는 1885년에 완공된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차고이며, 3대의 기관차를 격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차고는 장식성이 높은 벽돌 구조의 건물로 아치형 지붕과 창문, 헤링본 무늬의 나무문이 갖추어져 있으며, 기능적이면서도 기품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꼴 모양의 건물 앞쪽에 있는 큰 나무문으로 차체가 들어갑니다. 건물 양쪽과 뒤쪽에는 여닫이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차를 수리하고 점검하기 용이하도록 앞쪽 문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붕에도 창문이 달려 있어 빛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붕에 있는 3개의 굴뚝을 통해서도 차체 점검 중에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고 1호

5대의 기관차를 격납할 수 있는 기관차고 1호는 190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이 차고에는 아이언 호스호(*Porter 4514*)로 알려져 있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증기 기관차가 격납되어 있습니다. (전차대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2개의 격납고는 원래 있던 것이지만, 왼쪽에 있는 3개의 격납고는 1996년에 복원된 것이기 때문에 벽돌의 색이 약간 다릅니다. 건물의 정면에는 문 위에 아치형 창문이 달려 있으며, 정면에 고창(高窓)이 늘어서 있습니다. 뒤쪽에도 창문이 있어 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차대

증기 기관차는 앞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위한 전차대가 필요합니다. 차고 앞에 있는 강철로 된 전차대는 1919년에 도쿄의 요코가와 교량 제작소(현: 요코가와 브리지)에 의해 제조되었습니다. 원래는 수동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장치로 바뀌었습니다. 전차대는 박물관

부지 내를 하루에 몇 차례 주행하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증기 기관차 ‘아이언 호스호(*Porter 4514*)’를 조작하기 위해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수조

증기 기관차는 대량의 물과 연료(나무 또는 석탄)를 소비합니다. 때로는 장거리 주행을 계속하기 위한 물과 연료를 실은 텐더라고 불리는 차량을 끌고서 달리기도 합니다. 차량 기지 내에 있는 강철로 된 탱크는 1916 년경에 만들어졌으며, 탱크에서 뺀어 나온 긴 방출구를 통해 텐더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벽돌 구조의 기초는 추운 계절에 물의 동결을 막기 위한 단열재 역할을 했습니다.

위험품고

석조 창고가 1898 년경에 지어졌으며, 도료와 석유 등의 가연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9 세기부터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옹벽

데미야 고가 부두는 1911 년에 만들어졌으며, 길이 313m, 높이 20m 의 석탄 적재 전용 고가 부두입니다. 열차는 경사를 따라 달리는 선로를 통해 부두로 접근했는데, 고가 부두에 이르는 선로의 노반을 지탱했던 것이 이 옹벽이었습니다. 석탄을 실은 화물차가 부두에 도착하면 화물차 아래에 있는 해치를 통해 짐을 내리고 도르래로 아래에 정박해 있는 선박까지 운반했습니다. 부두는 1944 년에 철거되었지만, 이 85m 의 옹벽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